# 지리산 전기열차 시대 열자

## 이환주 남원시장, 국토부 장관 간담회서 시험노선 R&D 추진 건의

이환주 남원시장이 국토교통부 내 부정적 입장으로 착수하지 못하고 있는 지리산 친환경 전기열차 시험노선 R&D 조속 추진을 국토교통부에 공식 건의했다.

이환주 남원시장이 국토교통부 내 부정적 입장으로 착수하지 못하고 있는 지리산 친환경 전기열차 시험노선 R&D 조속 추진을 국토교통부에 공식 건의했다.

이환주 시장은 16일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간담회를 갖고 국토교통부의 지리산 친환경 전기열차 시험노선 R&D 미추진 결정에 따른 문제점을 설명하고 시험노선 R&D 추진을 강력히 요청했다.

국토교통부는 2015년 12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기획연구를 완료하고 금년 3월 산악철도 실용화 기술개발 R&D 과제 추진여부를 결정하는 신규과제 검토회의에서 경제성 및 수요부족, 핵심기술 추가검증 등의 사유를 들어 미추진 결정을 한 바 있다.

당시 국토교통부 신규과제 검토회의에서 제기된 문제점에 대해 남원시는 충분한 경제성과 수요가 있으며, 산악철도 핵심기술 또한 검증이 완료되었고 또한 신규과제 검토회의의 절차상 문제점이 있다는게 이 시장의 설명이다.

주요 요청사항은 국토부 신규과제 검토회의에서 미추진 결정한 지리산 친환경 전기열차 시험노선 R&D 재검토를 통해 2017년도 예산(19.6억원) 집행 추진과 대선공약인 지리산 친환경 전기열차 도입에 대한 국토부의 실행계획 반영이다.

지리산권 친환경 전기열차 사업은 남원시가 국립공원 제1호인 지리산에 친환경 녹색교통시스템인 산악철도를 도입해 4계절 산악관광을 선점하여 지역경제활성화는 물론 산악벽지형 주민에게 겨울철 교통기본권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전북지역 핵심공약 중 하나이다.

이환주 시장은 "대선공약인 지리산 친환경 전기열차 사업이 반드시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정치적 노력을 다해 국토교통부를 지속적으로 설득하겠다"고 말했다.

/남원=유영철 기자

# 안전한 보육환경 인프라 구축 온힘

## 순창군, 사업비 9억여원 투자 공립 복흥 어린이집 착공

순창군이 공립 복흥어린이집을 착공하면서 안전한 보육환경 인프라가 탄탄해지고 있다.

특히 이번 복흥어린이집이 완공되면 순창의 국·공립 어린이집 비율은 35.72%로 현재 전라북도 국공립어린이집 비율인 3.83%를 크게 웃돌게 된다. 현재도 순창 국·공립 어린이집 비율은 28.5%로 국·공립어린이집 비율은 도내 1위다.

군은 최근 공립 복흥어린이집 건립 사업을 본격 착공했다고 밝혔다.

1994년 건립당시 폐 패널 자재를 활용하고 건립한지도 20년이 지나 노후화가 심각한 상황으로 열악한 보육환경과 안전을 걱정하는 지역 여론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군은 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해 운영키로 결정하고 2014년 5억 3천만원의 국가예산과 지난해 경제계 보육지원 사업으로 3억 6,700만원을 추가 확보해 총 9억여원을 투자해 사업을 본격 추진하게 됐다.

어린이집 부지는 천주교 재단이 매입해 군에 무상 사용토록 조치한 상태다.

31명의 어린이들이 성가정 어린이집에 재원하고 있어 지역주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한 보육환경 조성에 거는 기대가 크다.

지난해 개원한 공립 금과어린이집도 운영에 호평을 받으면서 지역의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에 한몫하고 있다.

금과어린이집은 전국 최초로 신 한옥형 건축구조로 지어진 어린이집으로 전통 한옥의 미를 계승하고 목구조와 현대건축구조의 융합을 시도해 공간 활용도가 높다는 특징이 있다.

보육실 4실과 유희실, 식당, 강당, 천방지축 실내놀이터 등을 갖춰 아이들이 한옥의 아름다움을 느끼면서 안전한 환경에서 자유롭게 뛰어 놀 수 있게 만들었다. 현재 31명의 아이들이 생활하면서 돌봄을 받고 있다.

순창군은 금과어린이집 이외에도 쌍치어린이집, 동계어린이집, 구림어린이집 이 공립어린이집으로 운영되고 있다.

/순창=이양원 기자

지역 소식통

## 순창군, 환경오염물질 최소화 배출사업장 점검 8개소 적발

순창군은 올 상반기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총 62개소(대기, 폐수, 가축분뇨, 폐기물 등)를 점검해 8개소를 적발하고 고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내리는 등 환경오염물질 최소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군은 환경오염 예방과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전북도, 타시군과 합동점검을 하는 등 적극적인 단속을 벌여왔다.

올 상반기 점검은 환경특별사법경찰관 2명으로 구성된 점검반 1개 반을 투입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해 폐수 무단방류 등 방지시설 비정상가동 여부, 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 여부, 배출허용기준 초과 여부, 운영일지 작성 여부, 기타 환경관련법 준수 여부 등에 대해 이뤄졌다.

주요 위반사항으로는 미신고 대기배출시설 운영, 폐수 무단방류, 건설폐기물 부적정 보관 등 8건으로 위반사업장에 대해서는 관련법령에 따라 고발, 과태료 부과 처분 등을 하고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지 시정 조치를 취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남원시 춘향골 파프리카 영농조합법인

# 농식품부 평가 '우수조직' 선정

남원 춘향골파프리카 영농조합법인이 농식품부 주관으로 실시된 농산물전문생산단지 운영실태 평가에서 우수 조직으로 선정됐다.

남원 춘향골파프리카 영농조합법인이 2017년 농식품부 주관으로 실시된 농산물전문생산단지 운영실태 평가에서 우수 조직으로 선정되어 수출물류비의 7%인 6,700만원의 인센티브를 받게되는 성과를 거뒀다.

이번 평가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지난 5월부터 전국 150개 원예전문생산단지를 대상으로 생산대비 수출비중 및 전년대비 수출비중 증가율, 단지규모, 공동선별 비중, 계약재배 수출비중, 자조금 조성 및 운영, 수출농가비율, 교육 및 회의참석, 안전성 관리실태 등 전반적인 운영실태 조사·평가를 통해 인센티브 지급 단지 선정과 수출전문단지 운영을 위한 자료 활용을 목적으로 평가했다.

남원 춘향골 파프리카는 2001년부터 재배를 시작하여 2010년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역 특화품목으로 지정받은 바 있으며, 현재 운봉지역을 주산지로 50농가에서 27.9ha를 재배하여 연간 4,000톤을 생산, 105억원의 조수익을 올리고 있으며, 전북지역 총생산량의 43.5%, 전국의 4.4%를 점유하고 있다.

특히, 운봉농협에 전문 APC를 설립하여 공동선별과 유통의 일원화로 전국적인 명성을 얻었고 지난해에는 일본에 918톤을 수출하는 등 외국에서도 품질과 맛을 인정받는 등 남원시의 대표적인 수출 농산물로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남원시 관계자는 "최적의 생산여건과 농가들의 표준화된 고급 생산기술을 접목하여 맛과 향이 뛰어난 고품질의 파프리카를 생산하고 있으며 운봉농협 전문 APC를 중심으로 엄정한 선별과 국내외 체계적인 유통을 하고 있다"며 지속적으로 소득작목 육성에 힘써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남원=유영철 기자

남원시는 남원시립김병종미술관 건립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미술인 및 시민을 대상으로 '남원시립김병종미술관 사업설명 및 토론회'를 열었다.

# 남원시립 김병종미술관 사업설명 · 토론회 개최

남원시는 연말개관 예정인 '남원시립김병종미술관' 명칭에 대해 논란이 되고 있어 남원시립김병종미술관 건립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미술인 및 시민을 대상으로 '남원시립김병종미술관 사업설명 및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에는 한국예총남원지부장 및 미술협회 회원, 시민, 사회단체장등을 포함하여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남원시립김병종미술관의 사업 추진 배경 및 홍보상황, 공사진행상황, 조례 제정상황 및 향후 운영계획 등 전반에 대해 설명하고, 참석자들로부터 다양한 질문이 오고 갔다

김병종은 남원(송동면) 출신으로 서울대 최연소 교수, 서울대학교 미대 학장, 서울대학교 미술관장을 역임하고, 올해의 미술기자상, 한국미술작가상, 대한민국 문화예술상을 수상하였으며, 중국시진핑주석 방문시 김병종 작가의 작품을 답례품으로 주었다. 미셸누리자니(프랑스), 에크하르트(독일) 등 유명 미술평론가들의 호평을 보더라도 전 세계적으로 그의 작품이 인정받고 있으며, 고향 남원에 남다른 애정을 드러내는 작가다

원시는 '김병종'을 브랜드로 활용 외래관광객등 유동인구 유입으로 인한 지역경제활성화 및 문화예술진흥과 미래의 주인공인 어린이·청소년들의 산 교육장으로 활용하기 위해 큰 틀에서 계획되고 추진된 만큼 지역 미술인들의 협조를 당부하였다.

/남원=유영철 기자

## 남원시 모범음식점 신청 접수

남원시(시장 이환주)는 시민의 건강증진과 음식문화 수준 향상을 위해 이달 31일까지 모범음식점 신청을 접수받아 지정기준 적합여부를 확인한 후 음식문화개선운동 추진위원회 심의를 거쳐 모범업소로 지정·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식사류를 주로 취급하는 일반음식점과 집단급식소가 신청대상이 되며, 기존 모범음식점 지정이 취소된 업소는 지정 취소일로부터 2년 경과 후 '모범음식점 지정 및 운영관리지침'의 지정기준에 적합할 경우 신청할 수 있다.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되면 영업시설개선자금 우선융자, 이용안내홍보 및 각종 행사시 이용권장, 출입 검사면제는 물론 모범음식점 지정증과 표지판을 게시하고 상수도요금 감면, 쓰레기봉투와 식중독 예방 물품, 음식문화개선 물품 등을 지원받는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지게 된다.

남원시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위생관리가 우수한 모범업소를 매년 10월 1일 정기 지정하고 있으며, 현재 40개소가 지정·운영되고 있다.

/남원=유영철 기자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